



오늘의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_ 누가복음 17:10

오늘의 주요 기사

- | | | | | | | | |
|---|------------|---|-----------|---|-------|---|-------|
| 2 | 하나님의 선교 특집 | 4 | 민다나오 비전트립 | 6 | 꿈꾸는산책 | 7 | 십자말씀이 |
| 3 | 겨자씨인도자 수련회 | 5 | 동북지역 탐방기 | 6 | 족구대회 | 8 | 공동체소식 |

달빛기도

이해인

너도 나도
집을 향한 그리움으로
둥근 달이 되는 한가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이
달빛처럼 순하고 부드러움을
우리의 삶이
욕심의 어둠을 걷어내
좀 더 환해지기를
모난 미움과 편견을 버리고
좀 더 둥글어지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려니

하늘보다 내 마음에
고운 달이 먼저 뜹니다
한가위 달을 마음에 걸어두고
당신도 내내 행복하세요, 둥글게!

시인의 기도처럼, 한가위의 둥근 달은 늘 우리에게 평화와 화해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세상은 점점 더 갈라지고 있습니다. 정치와 사회의 갈등은 깊어지고, 경제의 무게는 우리의 어깨를 더 무겁게 짓누릅니다.
이런 시절일수록 서로를 향한 눈길은 차갑고 날카로워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달빛을 닮아 말합니다. 욕심의 어둠을 걷어내고, 미움과 편견을 버리고, 조금 더 환해지고 둥글어지기를 권합니다.
그 길은 결국 기도의 길입니다. 두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풀어지고 다시 서로를 바라볼 힘을 얻게 됩니다.
추석의 달은 그저 하늘에 떠 있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걸어 두신 화해와 사랑의 표징입니다.
고운 달빛을 나누어 가질 때, 개인의 삶은 물론 사회와 공동체도 조금은 따뜻해 질 수 있습니다.
긴 연휴속의 한가위, 저마다의 삶의 짐이 무겁더라도 마음의 달을 먼저 띄워 올려 봅시다.
미움 대신 용서, 불신 대신 기도, 나눔과 격려의 손길로 서로의 얼굴을 비출 때, 분열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_ 마태복음 5:14

하나님의 선교로 살아가는
가정 특집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정(깨어 준비하는 가정)(마 24:42)

2025년 함글함글은 올해 교회 포어인 '하나님의 선교로 살아가는 가정'에 맞게 '하나님의 선교로 살아가는 이야기'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지난 호 '고난 중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가정' 이어 이번 호에는 '깨어 준비하는 가정'에 대해 나눕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과 깨어 있는 가정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_ 마태복음 24:42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세상 끝날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주신 경고이자 약속입니다. 주님은 그 날과 그 시각을 우리가 알 수 없음을 분명히 하시며, 방심하거나 잠들어 있지 말고 늘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 태도를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가정이 붙들어야 할 중요한 명령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정은 신앙을 지키기 가장 치열한 자리입니다. 물질적 풍요와 세상의 성공을 향한 압박, 미디어와 정보의 홍수, 바쁜 일상과 관계의 갈등은 우리를 쉽게 무디게 하고, 영적으로 잠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가정은 이런 유혹 속에서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가정은 믿음으로 오늘을 해석하고,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며, 서로를 세워가는 가정입니다.

수많은 유혹 속에서 깨어 있는 가정의 특징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가정)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오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깨어 있는 가정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며 그분의 뜻을 삶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물질이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방향을 잡는 가정)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자 우리의 길잡이입니다. 가정이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이 깊어집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힘이 생깁니다.

(기도로 깨어 있는 가정) 기도는 깨어 있기 위한 실제적인 길입니다. 가정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이 모이고 세상의 유혹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두려움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고 흔들림 속에서도 믿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서로를 지켜주는 가정) 깨어 있는 가정은 구성원들이 서로의 믿음을 지켜줍니다.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격려하고 자녀가 부모를 위해 기도하며 가족이 함께 믿음으로 일어설 때, 가정은 작은 교회로서 세워집니다.

깨어 있는 가정을 위한 실천 방안

(물질주의 유혹 속에서 '칭지기적 소비 습관' 세우기) 세상은 더 많이 소유하고 소비할수록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깨어 있는 가정은 소비를 절제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합니다. 예산을 세워 '하나님께 드릴 것, 가족이 사용할 것, 이웃과 나눌 것'을 구분하는 작은 훈련이 물질의 유혹에서 가정을 지켜줍니다.

(미디어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경계하는 눈' 기르기) 스마트폰과 인터넷, 게임과 영상은 신앙을 방해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깨어 있는 가정은 하루 일정 시간 '디지털 금식'을 정하거나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건전한 콘텐츠를 선택하며 무엇을 보고, 듣고, 읽을지 의도적으로 구별합니다.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일 때, 자녀도 미디어 사용을 절제

하는 힘을 배우게 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가정 예배와 기도 시간' 지키기) 학업과 직장, 수많은 일정에 쫓기다 보면 영적 중심이 무너집니다. 깨어 있는 가정은 하루 10분이라도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세상의 염려에 잠식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킵니다.

(관계 갈등 속에서 '용서와 격려의 언어' 사용하기) 가정 안의 갈등은 신앙을 약하게 하고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깨어 있는 가정은 불평과 원망 대신 위로와 격려의 말을 선택합니다. 갈등이 생길 때 즉시 기도하며 화해하고 말로 서로를 세우는 습관을 통해 가정은 유혹보다 강한 사랑의 울타리가 됩니다.

(세상 가치관 속에서 '신앙적 관점의 대화' 나누기) 세상은 성공과 성취, 인기와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삼습니다. 그러나 깨어 있는 가정은 뉴스를 보거나 사회 문제를 접할 때 말씀을 기준으로 해석하고 대화합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라는 질문을 습관화하면, 세상 속에서도 신앙의 나침반을 잃지 않게 됩니다.

(무속과 사이비로부터 '분별하는 신앙 훈련' 세우기) 세상은 눈에 보이는 힘과 즉각적인 해결을 약속하는 무속과 사이비로 가득합니다. 깨어 있는 가정은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삶을 분별합니다. 자녀와 함께 사이비의 특징과 미혹의 방법을 알려주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 외의 어떤 대안도 찾지 않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와 긴밀히 연결되어 신앙을 나누고 지도자의 권면을 따를 때, 가정은 거짓된 영에 속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결론: 재림을 기다리는 깨어 있는 가정

깨어 있는 가정은 단순히 경계하는 가정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분명히 걷는 가정입니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미디어보다 말씀을, 갈등보다 사랑을, 세상 가치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가정은 신앙을 어렵게 하는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실천이 쌓일 때 우리의 가정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복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함글함글



2025 겨자씨 인도자 수련회

성경이 가르치는 섬김

겨자씨 인도자 수련회 둘째날, 안동교회 김승학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17장 27~29절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안동 지역 산불 피해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래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본문은 성경이 가르치는 섬김 또는 헌신의 세 가지 중요한 자세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협력하는 섬김

(다윗의 이야기)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도망하여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그는 시장하고 피곤하며 목마른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암몬 족속 나하스의 아들 소비,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래라는 세 지역 유지가 협력하여 다윗과 그의 일행에게 침상, 대야, 질그릇, 곡식, 꿀, 버터, 양, 치즈 등을 가져다주어 그들을 먹게 했습니다. 이들이 서로 의논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협력하여 다윗에게 큰 힘이 되었음은 분명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역) 우리 삶에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기 어렵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성부, 성자, 성령)께서도 서로 동역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하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 이후 주된 사역을 이루고 계시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파트너로서 함께 일하십니다.

(한국 교회 역사) 한국 기독교 140주년(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 입국 기점)과 안동 지역 복음 전래(1893년 배위량 선교사) 역사를 통해 협력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안동교회 초기에는 한국인 담임목사와 선교사 동사무사(오월번 선교사)가 당회장직을 번갈아 맡고, 선교사가 한국인 목사에게 설교와 성찬식을 맡기는 등 리더십을 이양하며 협력하여 교회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적용) 겨자씨 모임의 리더들과 소그룹 멤버들이 함께 협력하여 섬길 때, 모임이 든든히 서고 작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위해 하나 되어 협력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날 것입니다.

희생을 무릅쓴 섬김

(다윗의 이야기) 소비, 마길, 바르실래는 다윗이 이미 왕권을 잃고 압살롬에게 쫓기는 패잔병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과 가족의安危가 위협받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도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편하고 안전한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모험 같은 일도 감내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동 지역 선교사들의 희생) 안동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소텔(사우대), 인노절(로저원), 오월번 선교사 등 세 명의 선교사가 장티푸스나 이질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미국 장로교 선교부는 고학력에 인격적으로 검증된 사람들을 선교사로 선발했지만, 이들은 기꺼이 목숨을 걸고 조선의 오지인 안동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희생했습니다. 오월번 선교사의 경우, 두 자녀와 자신까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며 큰 희생을 감내했습니다.

(적용)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과 같으며, 비록 오늘날 모두가 순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각오로 리더들이 역할을 감당한다면 교회와 겨자씨 모임이 든든히 설 것입니다.

필요에 맞는 섬김

(다윗의 이야기) 소비, 마길, 바르실래가 다윗 일행에게 가져온 물건들(침상, 그릇, 음식, 양 등)은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진정한 섬김은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것을 전하는 것이지, 자신이 남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그것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앞 우물 물을 마시고 싶다는 지나가는 말을 했을 때, 세 용사가 블레셋 진지를 뚫고 목숨을 걸고 물을 떠다 바칩니다. 이는 다윗이 정말로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허투루 듣지 않고 파악하여 희생적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헌신의 의미) 헌신은 내 이해관계를 대입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혹은 어떤 일을 위해서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 바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교회 주방 봉사를 위해 매일 팔굽혀펴기를 50번씩 하는 권사님은 자신이 봉사하는 곳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몸을 만들어 헌신 하였습니다.

(적용) 리더들은 필요한 것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소그룹 리더와 구성원들도 서로 협력하고 합심하여 필요에 맞는 헌신과 섬김을 할 때 건강한 구역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15장 8절("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퍼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워 주라") 말씀처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의식하고 도와야 합니다.

결론

우리가 협력하고, 희생을 무릅쓰고, 필요에 합당하게 섬길 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고 겨자씨 모임이 작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함줄함울



비전트립
필리핀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한 민다나오 비전트립

이번 비전트립은 3세대가 함께한 뜻깊은 비전트립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명과 성인 3명, 권사님 2분, 팀장님과 목사님이 한마음 한뜻으로 누구 하나 망설임 없이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고, 현장에서 아이들을 대할 때는 진심으로 대하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민다나오 카가얀 데오로시의 끼나위 도서관까지 가는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마닐라 공항에서 경유하여 라퀸딩안 공항까지 대기 시간까지 해서 약 12시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모인 시간이 오전 5시 30분이었고, 라퀸딩안 공항에 도착하여 선교사님을 만난 시간이 오후 6시경이었습니다. 송지형 선교사님이 자녀들의 건강 문제로 잠시 귀국하시어 미리 만남을 가지면서 민다나오와 끼나위에 대한 사전 교육은 받았지만, 내심 속으로는 안전 문제가 걱정이었는데, 막상 공항에 도착하여 현지를 돌아다니면서 보니 안전에 대한 걱정은 정말 기우일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3세대가 함께하다 보니 일정 및 프로그램 준비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것이 더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일정 중 언어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채모세 목사님의 유창한 영어 실력과 이종민 팀장님의 결단력으로 큰 어려움 없이 해결해 나가게 되었고, 무엇보다 사전에 매주 모임을 통해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사역지에서 매일 시작과 끝을 기도로 준비하니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셨는지, 일행 중 누구도 아프거나 날씨가 나쁘거나 일정에 문제가 생긴 일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일정 내내 맑은 하늘을 주셨고, 오전 사역을 마치고 오후에 울타리 보수 작업을 할 때는 구름 기둥을 보내주시면서 필리핀 현지인 분들의 도움과 함께 기존에 낡고 사이사이 험령하게 만들었던 울타리가 튼튼하면서 촘촘하게 완성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문화 사역을 하면

서 우리가 준비해 간 것보다 더 큰 감동을 준 것은 끼나위 아이들이 선교사님께 먼저 자발적으로 제안해 한국에서 온 우리를 위한 작은 공연을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끼나위 지역은 산지에 위치해 있어 기본 여건이 안 좋아 학교도 잘 못 가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찬양곡 위십과 귀여운 율동, 현지인 조안 선생님의 자녀가 준비한 낭독문 등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 더 큰 선물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9절 말씀처럼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가 말씀을 따라 참되고 경건하게 사랑을 행하자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 것을 이번 여정을 통해 몸소 느낀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한 제인, 예서, 예준이의 어른들보다 먼저 나서서 사역하는 모습과 더운 날씨에도 최선을 다하신 이미용 팀의 김지수, 임미희 두 분 권사님, 회계를 맡아 사역 일정 내내 완벽한 처리를 해주신 나정화 집사님, 사역 준비물과 프로그램을 준비한 허소정 집사님, 결단력 있는 지도력으로 일정을 이끌고 넉넉히 베푸시는 마음을 가지신 이종민 팀장님,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눈을 맞추고 기도해 주신 친화력 최고의 채모세 목사님, 잡무를 담당한 저까지 민다나오 끼나위 어벤져스 팀이었던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끼나위 포에버~~~

참고로 내년에는 직항 노선이 생길 수 있다고 하오니 많은 분의 관심과 끼나위와 송지형 선교사님 가정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송준영 집사 / 8교구



통일선교분과
비전트립

감동의 동북지역 탐방

2025년 9월 8일부터 12일까지 4박 5일 동안 담임목사님을 비롯한 22명의 성도들이 함께 ‘동북지역 탐방’을 다녀왔다. 8개 도시와 읍을 잇는 1,400km 이상의 긴 여정을 버스로 이동하였다. 이번 탐방은 통일선교분과가 주관한 비전트립으로 현지 인솔자와 가이드가 동행해 주셨다. 선교와 역사, 지리를 두루 아우르는 여정은 깊은 도전과 은혜를 안겨주었다.

첫째날: 심양에서 시작된 여정

여정의 첫 방문지는 심양의 동관교회였다. 이곳은 스코틀랜드에서 파송된 존 로스(John Ross) 선교사가 세운 교회로, 그가 서상륜 등의 도움을 받아 1887년 신약전서를 조선어로 번역한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그 신약전서는 조선에 들어가 복음 전파의 중요한 씨앗이 되었으며 한국 교회사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어서 방문한 서탑교회는 조선인 이주민들이 세운 디아스포라 교회로, 오애은 목사와 여러 한인 목회 지도자들을 배출하며 한민족의 믿음을 지켜온 신앙의 터전이었다. 이후 세계에서 가장 긴 수중동굴인 본계수동을 관람한 뒤 백두산 인근 송강하로 향했다.

둘째날: 백두산 천지를 오르다

맑은 날씨 덕분에 남파 경로를 따라 백두산(중국어명 장백산)에 올라 장엄한 천지를 직접 볼 수 있었다. 신비로운 짙은 남빛의 분화구 호수는 웅대한 규모로 장관을 이루었고, 모두의 마음에 깊은 감탄을 자아냈다. 그러나 통일되지 못한 현실 속에서 중국 땅을 거쳐서만 천지를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은 마음을 무겁게 하였다.

셋째날: 고구려의 숨결을 만나다

이날은 집안(集安)으로 이동하여 광개토대왕비와 장수왕릉, 환도산성 고분군, 그리고 국내성(國內城) 터를 둘러보았다. 눈앞에 펼쳐진 유적들은 고구려의 기상과 찬란했던 역사의 숨결을 생생히 전해주었다. 하지만 중국은 이를 소수민족인 조선족의 역사라 규정하여 자국 역사로 편입하고 있다고 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넷째날: 압록강에서 분단의 현실을 마주하다

고구려의 첫 수도였던 졸본으로 추정되는 환인의 오녀산성(五女山城)을 지나 단동으로 이동한 일행은 압록강 유람선을 타고 북한 신의주를

조망하였다. 강 건너 보이는 신의주의 건물과 선전 구호, 그리고 건설 사역에 동원된 군인들의 모습은 직접 마주한 분단의 현실을 더욱 실감케 했고, 모두의 마음을 숙연하게 했다.

다섯째날: 안중근 의사의 뜻을 기리며

마지막 날은 여순을 방문하여 일본관동법원과 여순감옥을 참관하였다. 관동법원에는 안중근 의사가 재판받을 받았던 현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고, 여순감옥에서는 그가 수감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중죄인(重罪人) 독방을 볼 수 있었다. 모두가 숙연히 고개를 숙이며,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희생을 되새기며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렸다.

간증과 은혜

이번 여정의 큰 은혜는 하루 대여섯 시간 가까이 이어진 이동시간 동안 나누어진 동행자의 간증과 비전이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생생히 증거하였고, 그 과정 하나하나가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하심임을 모두가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였다. 특히 자신의 인생을 십일조처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결단으로, 미국의 명문대에서 박사 학위를 마친 뒤 헌신하게 된 이야기, 그리고 상황의 변화 속에서 비즈니스로 인도받은 과정은 큰 감동과 도전을 주었다.

선교적 성찰

세계에는 여전히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이 많으며, 북위 10도에서 40도사이의 ‘10/40 원도우’가 대표적이다. 북아프리카, 중동, 인도, 동남아시아 일부를 포함하는 이 지역의 동쪽 끝에 있는 대한민국은,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할 나라라는 점에서 특별한 사명을 갖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전세계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한민족이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하였다.

맺음말

이번 탐방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맡기신 선교적 사명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더불어 우리 동포인 조선족에 대한 편견을 지우고, 북한과의 관계를 다시금 성찰하는 시간이기도 하였다. 선교와 역사, 지리를 아우른 이 여정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과 소명을 새롭게 불드는 거룩한 도전의 길이었다.

김용규 장로



꿈꾸는3막
꿈꾸는산책

여전히 비전과 소명을 발견할 수 있는 시기

9월 25일 목요일, '꿈꾸는 3막'에서 진행한 꿈꾸는산책 프로그램에서 가평 남이섬을 다녀왔습니다. 총 35명의 인원이 함께한 이번 여정은 새벽까지 내리던 비가 멈추고, 맑게 갠 하늘과 따스한 햇살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감사의 고백이 절로 나왔습니다. 특별히 준비된 사진 컨테스트에서는 말씀 구절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고 (출 3:5)"라는 말씀을 붙들고 각자가 찍은 사진 속에 하나님을 향한 묵상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내며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꿈꾸는산책 프로그램의 핵심은, 시니어의 삶이 끝이 아니라 여전

히 비전과 소명을 발견할 수 있는 시기라는 메시지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6명의 스태프들이 솔선수범하며 모든 준비와 진행을 섬김으로 감당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10명의 리더들과 각 조원들이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는 공동체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 꿈꾸는산책 프로그램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고 서로를 통해 은혜를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교회 많은 교우들이 꿈꾸는 3막 프로그램에 함께하며 새로운 비전을 발견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박준범 목사



남선교회연합회
전교인족구대회

함성으로 가득했던 소통과 교제의 족구 한마당

가을로 접어든 9월 21일, 정신학원 체육관에서 울려나온 박수와 함성이 잠실벌에 퍼져 나갔다. 주님의교회 전 교인 친선 족구대회가 열린 것이다. 주 안에서 스포츠를 통해 소통하고 교제하는 건강한 신앙생활과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교역자와 성도 간 친목활동이다. 족구대회는 2018년에 시작하여 코로나19로 3년간 중단됐다가 재개되어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았다. 그동안 교역자와 성도 간 소통과 친교를 증진하고, 개인의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한 신앙생활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주일예배 후 짧은 행사 시간, 성별 고려 없는 경기 종목, 선수 위주의 참여 등으로 교감의 시간과 참여 폭이 제한되는 아쉬움도 있었다.

올해는 정신학원 신축 체육관에서 실내 경기를 치르게 되어 기상과 지형의 제약을 해소할 수 있었다. 농구·배구·족구 등이 가능한 훌륭한 시설로, 조명과 냉난방, 편의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선수와 관람객 모두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했다. 대회를 앞두고 전 교인 홍보와 남녀 연합 참여를 강조하며, 형식적 행사가 아닌 진정한 소통과 친교의 장이 되도록 준비했다. 교역자와 5대 자치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잔치 분위기를 만들고자 했으며, 준비는 5남·6남 회장이 주도하고 각 회장들이 역할을 분담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남선교팀의 선수 신청이 부족해 한 팀만 구성되었고, 운영위원회는 한 팀만 출전하

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행사 하루 전 교회 지휘부의 요청으로 결국 남선교회 지도목사와 회원, 교회 사무처 직원이 함께한 '화합팀'을 급조해 출전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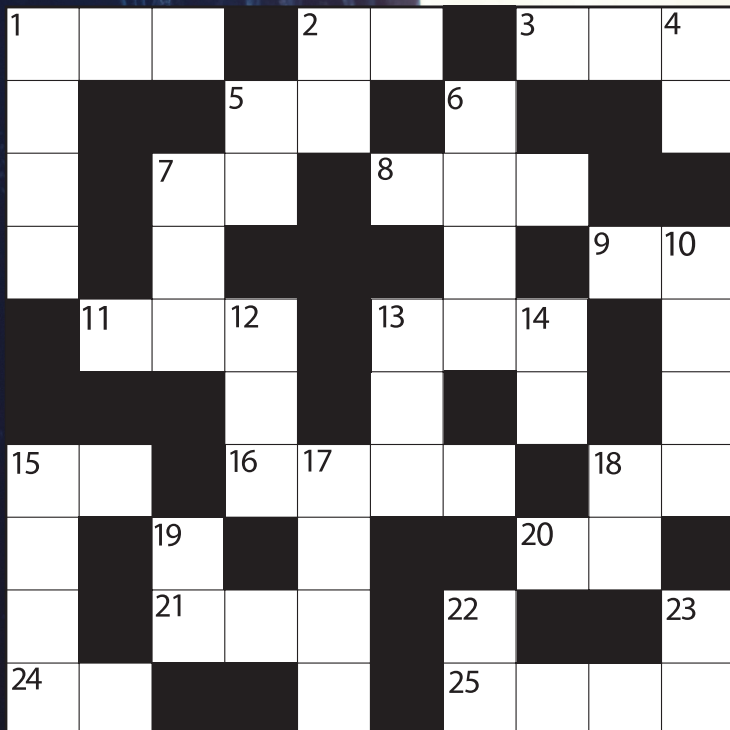
드디어 제5회 주님의교회 교역자 : 성도 간 친선 족구대회가 개최되었다. 출전팀은 교역자 2팀, 남선교 1팀, 청년부 1팀, 화합팀 1팀 등 총 5개 팀으로,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책임목사님은 시상금 후원을 아끼지 않았고, 장로회·안수집사회·여전도회도 적극 후원했다. 경기에서는 교역자팀이 노련함과 조직력을, 청년부는 패기와 기습적인 공격으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청년부는 20~30대의 젊은 패기로 날렵한 움직임과 세련된 기술을 보여 우승 후보로 꼽혔다. 다만 실력을 과시하려는 욕심으로 실수가 잦았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최종 결과는 교역자 1팀이 종합우승, 청년부가 준우승을 차지했고, 나머지 세 팀은 참가상을 받았다. 여전도회 임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열정적으로 응원하며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이에 응원상이 족석에서 수여되었다.

이번 족구대회를 통해 세대와 부서가 함께 어우러지는 소통과 친교의 장이 마련되었다. 내년에는 남선교회와 여전도회가 함께하는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되기를 기대한다. 남선교회 연합회



가족과 함께 풀어보는 성경 십자말풀이 고린도전서 편

이번 호는 신약의 일곱 번째 권인 <고린도전서> 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어려움 속에 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로, 서기 55년 무렵 씌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 찾으실 수 있도록 힌트에 해당 성경 구절을 안내했습니다. 정답은 다음 호에 발표합니다.



로마서 편 정답



가로 힌트

1. 앞의 말에 이어 오는 다음 말의 내용이 달라질 때 쓰는 말. 하지만. (고전 1:27)
2. 남자가 아내를 맞는 일. 보통 "○○간다" 식으로 쓴다. (고전 7:28)
3. 고대 로마에서 중죄인을 벌하기 위해 사용하던 형틀.
예수님이 여기에 달려 돌아가셨다. (고전 2:2)
5. 많은 시간이 흐르도록, 시간이 많이 흐르는 사이를 뜻하는 말이다. (고전 13:4)
7. 여전히. 어떤 상태나 일이 바뀌거나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고전 3:3)
8.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 서쪽 코린토스 만에 연한 해안도시.
지금의 지명은 '코린토스'이다. (고전 1:2)
9. 어떤 목표를 향해 집중함. 쫓고 구한다는 뜻이다. (고전 14:1)
11. 신약 시대 고린도 교회의 성도.
이 집안 사람들이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소식을 알렸다. (고전 1:11)
13.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
로마식 이름이므로 로마인이나 헬라인이었을 것이다. (고전 1:14)
15. 대체로, 일반적으로, 또는 상식적으로 등의 뜻으로 쓰인다. (고전 10:20)
16. 바울의 전도 활동에 함께 한 동역자. 헬라인이다. (고전 1:1)
18. 무엇인가를 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자격.
대개는 '의무'와 짝을 이루어 주어진다. (고전 7:37)
20. 세상의 종말. 세상이 끝나는 상황을 말한다. (고전 10:11)
21. 기독교 초기 바울의 동역자. 구브로 섬 출신 레위 사람 요셉의 별명이었다. (고전 9:6)
24. 무엇인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을 드러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거리"라고 한다. (고전 1:29)
25. 하나님 외의 다른 존재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일.
또는 그런 대상으로 만든 형상을 말하기도 한다. (고전 5:10)

세로 힌트

1. 고린도에 있던 회당의 우두머리.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고전 1:14)
2. 다가올 언젠가를 뜻하는 말. (고전 3:22)
4. 여러 가지 중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한 집안의 어른'이라는 뜻도 있다. (고전 12:31)
5. 여러 가지 중 단 하나만. (고전 3:6)
6. 나이가 어린 사람. 어른이나 청소년이 아직 되지 않은 사람을 뜻한다. (고전 14:20)
7.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했던 유대인. 바울의 동역자였다. (고전 1:12)
10. 흥미로워서 불안한 것.
우리에게는 평범한 일상도 외국인에게 이렇게 보일 수 있다. (고전 4:9)
12. 지금의 튀르키예 서쪽 에게해 연안에 있었던 도시. 기원전에 그리스 아테네에 의해 건설되었으며, 바울이 전도여행 중에 들러 선교했다. (고전 15:32)
13. 둘 또는 여러 것의 사이. (고전 2:7)
14. 사백구십구 다음에 오는 숫자. (고전 15:6)
15.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전승된 신앙 확인의 방식이었다. (고전 7:18)
17. 고린도의 그리스도인.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고전 16:15)
18. 권력과 세력을 아울러 표현하는 말. 사회적.
정치적으로 가진 힘을 표현할 때 쓴다. (고전 11:10)
19.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에게 주신 이름. '바위'라는 뜻이다. (고전 15:5)
22. 상당히, 아주. 일반적인 정도보다 훨씬 더함을 뜻하는 말이다. (고전 4:3)
23. 신앙의 대상을 높여 섬기는 일. 공경하며 숭배하는 것을 말한다. (고전 14:25)

십자말풀이 505호 정답자: 정현정 집사(5교구)

십자말풀이와 함글함글 기사를 읽고 소감을 제출해주시는 분께 커피쿠폰을 드립니다. 십자말풀이는 함글함글 지면에 답을 직접 쓴 사진을, 기사 소감은 아래한글이나 워드로 A4 1장 이상 분량으로 작성한 파일을 함글함글 메일(pclhamletter@naver.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때는 이름, 직분, 교구,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가정 (창 2:24)

제 24기 결혼 예비학교

2025. 11. 9 ~ 11. 23 (3주간 매 주일),
오후 3시 ~ 6시 30분 / 주님의교회 3층 초등부실

대상 : 결혼을 앞둔 커플 또는 신혼부부
회비 : 4만원 (커플 2인 기준)

주차별 커리큘럼

1주차 11월 9일
알·돌이 하나 /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결혼과 가정
부부의 성(性)과 감성(性) / 부부의 성(性)에 대해 알고, 감정을 다루는 방법

2주차 11월 16일
달은 두 다른 우리 / 달은 두 서로 다른 부부의 공통점과 차이점
말과 마음이 통하는 우리 / 부부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훈련

3주차 11월 23일
가난한 듯 부요한 우리 / 성경 속 그리스도인의 자혜로운 재정 관리법
토르콘서트: 결혼에서 살아남기 / 결혼 생활에 관한 실질적인
고민과 질문에 답하다.

문의: 이영원 전도사
010-3954-7208

신청 QR

신청QR

주님의교회

파더와이즈 7기

지혜

삶의 다양한 관계 안에서
아버지들을 성경적 원리로
튼튼하게 세워주는
가정사역원 프로그램

대상 및 모집인원

주님의교회 모든 남자 성도 20명

참가회비

3만원(교재 및 교육자료)

주제

지혜로운 아버지 Wisdom for Fathers

커리큘럼

주차	일시	교육주제
1주 개강식	10.17	입학식, 환영과 사랑의 인사, 65기도
2주	10.24	지혜에 대한 탐구
3주	10.31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인생의 기로 세우기
4주	11.7	하나님과 남성의 관계
5주	11.14	남편과 아내의 관계
6주	11.21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
7주 수료식	11.28	아버지와 세상과의 관계

신청QR

주님의교회

제4기 큐티학교

주님과함께 시즌2에 발맞추어 말씀과 동행하세요!

시간: 주일 오후 2:30~4:00
장소: 1층 소예배실
문의: 박준범 목사(010-7164-5324)

1강 10월12일
큐티란 무엇일까요?
삶에 스며든 큐티 습관 만들기
박준범 목사

2강 10월19일
큐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큐티를 어떻게 할 수 있나!
박준범 목사

3강 11월2일
큐티의 적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과 삶의 거리 좁히기
박준범 목사

4강 11월9일
큐티의 나눔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화수 담임목사

해피맘스쿨 12기

복 있는 엄마,
시편 태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마의 몸과 마음을 채우고
기도와 찬양과 활동을 통해 하나님과 자녀와 대화하며
'주님의 해피맘'의 정체성을 함께 세워가는
주님의교회 임산부 양육프로그램입니다.

복 있는 엄마, 힘내요 ♥

10.17 ~ 12.5 (매주 금, 8주)
오후 1:00 ~ 2:00
온라인(Zoom) 문의: 김은선 목사 ♥

주차	일시	교육주제
1	10/17	복이 되게 하소서
2	10/24	멋진 신랑인이 되게 하소서
3	10/31	새 노래로 찬송하게 하소서
4	11/7	복과 빛을 주소서
5	11/14	예배의 복을 주소서
6	11/21	새 노래로 찬양하게 하소서
7	11/28	범사에 감사하게 하소서
8	12/5	찬양의 위력을 주소서

1. 말씀 시편으로 묵상하고 암송하며
2. 기도 하라
3. 찬양 찬양과 스트레칭 운동으로
4. 활동 주자에 따른 안개 활동으로 태교합니다.

주님의교회

수험생을 위한
부모 기도회

2025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걸음을 알립니다
(월 16:9)

일시 10/18, 10/25, 11/1 (토) 오전 6:30 ~ 7:30
11/8 (토) 자녀축복 새벽기도회 오전 5:20 ~ 6:20
장소 중예배실 및 대예배실 (11/8) (원정 및 온라인)
대상 수험생을 둔 부모, 교사

1주 10/18
날 살피시는 주
(인도하심)
김계원 목사
고등부

2주 10/25
내 맘을 아시네
(고백)
박준범 목사
가정사역원

3주 11/1
내 삶의 주관자
(결단)
방윤주 목사
청소년부

4주 11/8
그의 행하심을 기억하라
(축복과 파송)
김화수 목사
담임

주님의교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 16:9

제6기
주님의교회 세움학당

이영원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복이로 그들을 막아서 아사해라. 잠 22:6

기간 9.13 ~ 11.15 (8월 7) 9주
시간 매주 토요일 6~8pm
대상 주님의교회 모든 성도
문의 차승현 목사 (010-7544-3945)

상반기 일정

일정	교육내용	강사	비고
9/13	N.T.와 C.T.	박민규 목사	주님의교회
9/20	21세기 기독교와 영성	윤경수 교수	주님의교회
9/27	선교적 교회와 사회봉사	이성곤 교수	장로회신학대
10/11	자기를 찾아 떠나는 교사 양성여행	조연상 목사	주님의교회
10/18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사 양성여행	박준범 목사	주님의교회
10/25	사명과 섬김의사람	박상진 교수	장로회신학대
11/1,2	부서 방문	현장실습	유유정, 어와나
11/8,9	비전을 찾아 떠나는 부서 방문	배운관 목사	주님의교회
11/15	아름다운 여행으로의 초대	김화수 목사	주님의교회

주님의교회

교회일정

- 10/11 (토) 자녀축복 새벽기도회
- 10/12 (주일) 정기당회
- 10/18 (토) 8교구 새벽특송
- 10/19 (주일) 추수감사주일(입교/세례예식)
- 10/22 (수) 3/4 분기 제직회
- 10/24 (금) 정책당회
- 10/25 (토) 미디어, 전문선교 새벽특송

알립니다

1. 후문 출차 안내

시간: 오전 10:00 ~ 오후 1:00

문의: 유신식 안수집사(010.5219.3902)

* 후문은 출차만 가능(도보 절대 금지)합니다.
주차안내부의 안내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모집합니다

1. 주방봉사자

시간: 8:00 ~ 10:00 (1부 국수팀)
12:00 ~ 2:00 (마무리팀)

문의: 임익수 장로(010.3758.6162)

2. 임마누엘(4부) 찬양대원 모집

문의: 이성규 안수집사(010.5503.5512)

3. 제4기 큐티학교 모집

일시: 10/12~11/9(주일, 오후 2:30~4:00)

신청: 1층 로비 큐티판대

4. 해피맘스쿨 12기 모집

모집: 10/12(주일)까지

교육: 10/17~12/5(매주 금, 오후 1:00) (중)

신청: 김은선 목사(010.4773.8186)

5. 결혼예비학교 제24기 모집

모집: 11/2(주일)까지 / 회비: 4만원(커플당)

대상: 예비 신혼부부, 신혼부부(결혼 후 1년 이내)

기간: 11/9~11/23(주일, 오후 3:00~6:30)

신청: 이영원 전도사(010.3954.7208)

주님의교회 전화상담

02) 416-5183 오후 1:00~5:00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나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함글함글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임익수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 집 : 홍보출판부

<함글함글>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글함글’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가다립니다. 이메일 : pclhamletter@naver.com

주님의교회

